

용, 여인, 그리고 연필... 강렬하지만 절제된 감성을 담다

박소빈 초대전, 5월 17일까지 '515갤러리' 4m 대작·광주서 첫 선 보인 채색화 등 눈길

박소빈 작가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용, 여인, 그리고 연필을 들 수 있다. 그녀의 작업은 신비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대형 화폭에 꿈틀거리는 강한 생명력을 담아내는데, 그 모든 작업을 '연필'로 해내는 게 인상적이다. 지난 2017년 박 작가 초대전을 진행했던 중국 금일미술관 전시기획자 황두의 말처럼 "스케치는 제대로 된 예술작품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 현대작가가 개인전에 연필 드로잉 작업을 선보이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모험적인 일"이다.

중국에 머물며 '모험'을 이어가고 있는 박소빈 작가의 최신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지난 2013년 광주시립미술관 청년 작가전에 선정돼 상록전시관에서 초대전을 연 이후 광주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9년 뉴욕 브루클린 BOS 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한 이후 해외에

서 작업하고 있는 박 작가는 지난해 중국 청두 싼쑤 클래식 차 박물관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대규모 전시회를 통해 소식을 전했다. 특히 금일미술관 전시에서는 43일에 걸쳐 17m 대작을 완성하는 '현장 드로잉'을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는 5월 17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515갤러리에서 열리는 초대전은 박소빈의 '지금, 현재'를 볼 수 있는 기획이다. 전시작들은 2017년 작품부터 최근 귀국하기 바로 전에 제작한 신작까지 다채롭다.

전시장 중앙에 걸린 작품 '부석사 설화와 선묘여인'은 4m 대작이다. 작품을 처음 접하면 "이게 정말 모두 연필 작업일까, 목탄과 파스텔 등을 활용해 문지르며 좀 더 편하게 그리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력이 만만찮음이 느껴진다. 수만번의 덧칠로 만들어진 생동감 넘치는 여체가 화면을 장악하는 작품 속엔 원초적 사랑의 이미지가 가득하다. 수줍은 듯 떠 있는 작은 초승달이 눈에 띄고 푸른빛 수채물감과 자연에 가까운 금색 석채로 화면에 포인트를 줬다.

"사람들이 진짜 다 연필로 그린 거냐고 많이 묻곤 해요. 어찌

면 금일미술관 현장 드로잉 작업이 그 증명의 방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웃음). 박소빈의 오리지널리티를 보여주는 작업이기도 하구요. 연필은 소묘라는 선입견에 본격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연필 작업을 하면서 제가 작업하는 용과 여체가 단순한 색수열리티가 아닌, 신비로운 에로티시즘으로 확대되고 영혼과 이상, 신의 세계로까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채색화 가 눈길을 끈다. 붉은빛과 노란빛을 주조로 한 작품은 검은빛 일색이었던 기존 작품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준다. 아크릴, 수채물감 등과 연필을 믹스해 그려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색깔은 오묘하다. 색을 강하게 발산하고 터트리는 것보다는 누르고 절제하면서 그 감성을 그대로 표현해 내는 게 훨씬 어려운데 화폭에 드러난, 미묘한 느낌이 인상적이다.

그녀 역시 20대 시절에는 다양한 색채를 썼다. 드로잉 작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해부학을 공부했고 수많은 드로잉 작업을 통해 이상적인 여체를 갈구하며 본질적 미에 천착했다.

"화려한 색을 버리고 비우는 것은 꽤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연필이라는 모노톤 작업을 통해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정서를 깎집어냈고 진솔한 감정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최근에는 색깔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아크릴과 채색 물감을 쓰는 데는 겁이 없어요."

4B, 6B 등 다양한 연필을 활용하는 박 작가는 심의 두께를 고려하며 연필을 깎는 그 순간부터 작품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그녀의 드로잉은 어깨에 늘 부상을 입을 정도로 고단한 작업인 터라 '건강을 챙기라'는 이야기도 자주 듣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 바람, 바다 등 자연 요소를 강조한 드로잉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녀가 앞으로 그릴 대작의 단초를 알 수 있는 작은 드로잉도 전시되며 작업 영상도 만날 수 있다.

한편 금일미술관 드로잉 작품인 '부석사 설화' 등 대작 3점은 성남큐브미술관에서 열리는 '2019 동시대 이슈전-바디스캔들'전에 초청돼 오는 8월 25일까지 전시되며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중인 오는 9월 현지 갤러리 초청을 받아 개인전을 연다. 문의 062-654-300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는 5월 17일까지 광주515갤러리에서 6년만에 초대전을 여는 박소빈 작가.



전시 공연 런치 토크

내일 낮 12시 광주시립미술관 내셔널 솔리스트 앙상블 출연

'전시와 공연 관람, 작가 토크, 그리고 점심 식사.'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24일 간단한 점심과 강의가 어우러진 '런치 토크'와 미술관 음악회를 진행한다.

'전시를 요리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런치 토크'(낮 12시-오후 2시)는 미술관 전시 기획과 연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초대 손님인 현재 열고 있는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전 참여작가 박건웅 만화가다.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에서 박 작가는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박 작가는 43항쟁을 다룬 '홍이 이야기', 김근태의 남영동 고문을 다룬 '집승의 시간', '노근리 이야기' 등 한국 현대사를 소재로 작업해왔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독립운동가 양우조·최선화 부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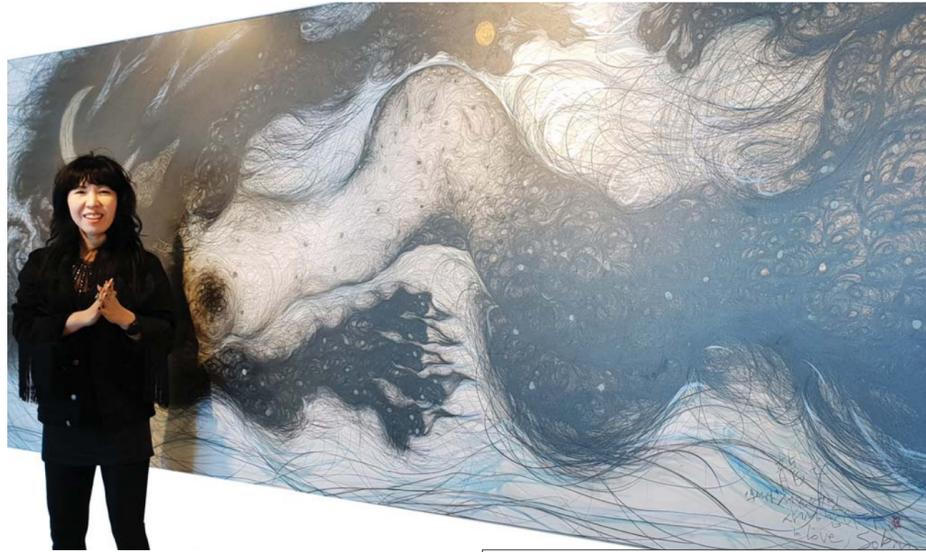
육아일기인 '세시 이야기'를 선보이고 있다. 선착순 50명 무료 참여.

강의가 끝나는 오후 2시부터는 미술관 로비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는 내셔널 솔리스트 앙상블(단장 김현경)이 출연해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하트 뮤직',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악장 왈츠',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 파헬벨의 '캐논', 젠킨스의 '팔라디오' 등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다. 또 장범준의 '별꽃 엔딩'과 BTS(방탄소년단)의 '봄날' 등 대중음악도 만날 수 있다.

'내셔널 솔리스트 앙상블'은 '광주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산하 현악 앙상블로 광주 출신 음악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3월 창단연주회를 마쳤다. 문의 062-613-71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518기록관-시립민속박물관 '나만의 광주 공유하기' 자료기증 캠페인

"광주학·역사·문화·생활사 관련 자료 기증반야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장 나의갑),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윤승중)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나만의 광주 공유하기' 자료기증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지난해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의 유물과 5·18 역사자료, 광주학과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발굴과 수집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광주의 민속과 생활사 자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료, 광주학 연구 기반조성을 위한 광주 근·현대 문화, 예술, 인물, 사회, 과학 자료를 망라한다. 자료 형태는 도서류, 사진, 그림, 실물자료나 디지털 파일 뿐 아니라 광주시민 외에도 타 지역 개인 및 단체의 소장 자료도 가능하다.

기증된 자료들은 문화재단, 시립민속박물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각각 기관 성격에 맞게 분류하여 보관하며 추후 각 기관에서 연구와 교육 자료, 전시 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34. /박성천 기자 skypark@

새롭게 만나는 국립광주박물관 서화실

허백련 등 지역출신작가 작품 전시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최근 전시관 2층 서화실의 전시를 새롭게 교체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박물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특별전 '대한민국 100년-역사를 바꾼 10장면'이 진행 중이다. 이에 맞춰 서화실에서는 같은 시기 활동한 광주·전남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 소개한다.

이번에 소개되는 작가는 의재 허백련(1891-1977)과 남농 허건(1908-1987), 그리고 영재 송태희(1872-1942)이다. 의재 허백련은 양친 허씨 가문으로 소치 허련의 방계 후손이다. 1938년 이후 광주에 정착해 결성한 연진회는 남도 화단의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남농 허건은 소치 허련의 손자로, 진도 윤림산방의 3대



주인이다. 그는 관념적 남종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실제 경치를 사색한 경험을 살린 독자적 화풍으로 '신남화(新南畵)' 장르를 개척했다. 영재 송태희는 화순 출신으로 학문적 소양을 갖춘 글과 그림으로 진정한 의미의 문인화를 창작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한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책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특허공법, 디자인방수,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6년무상A/S/정기점검



년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GOLD회원 모집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외에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연회비

구분	연회비(VAT포함)	비고
개인(1년)	₩ 2,800,000	본인 1인
증정품		· 객실 무료이용권 2매 · 레스토랑 이용권 1매 · 휘트니스 이용권 4매

